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이 상 현 |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장

■ 연구소의 설립 배경과 목적

현대사회에서 '민속'이란 용어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개념에 관해서는 전문 교육을 받는 사람조차 자세히 모르거나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민속은 전통적인 생활양식과 정신문화의 총체를 의미하며, 민속학은 전통적인 사회, 종교, 의식주 그리고 언어생활을 주로 연구하는 분야이다. 민속학의 연구대상들은 일제강점기 식민지 정부의 통치정책과 1960년대 이후 정부의 산업화 정책으로 급격히 소멸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속학연구는,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 사라져가는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가 설립되어 있는 안동은 조선시대까지 우리나라의 정치, 사상, 종교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지역이었으나, 일제강점기 이후 서울과 대도시 중심으로 진행된 정책 변화로 경북 북부지방의 소도시로 전락하였다. 역설적이지만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안동에는 수많은 유·무형문화재가 온전하게 남아 있을 수 있었다. 지역의 특

수한 상황은 전문적인 연구인력을 요구했으며, 마침내 1979년 안동대학교가 설립되었고 우리나라 최초의 민속학과가 개설되었다. 민속에 대한 교육 이외에 민속을 비롯한 지역의 전통문화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위하여 연구소 설립이 대학 초창기부터 요구되었다. 각고의 노력 끝에, 학과가 개설된 지 11년 뒤인 1990년에 민속학연구소가 설립되었다.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는 설립 초기부터 안동을 비롯한 경상북도의 전통문화와 농촌 마을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이외에 민속학연구소에서는 지역박물관 계획의 수립, 지역 축제의 기획 및 평가, 전통문화 관광 상품의 개발, 농어촌 되살리기 운동의 전개 등 응용적 연구와 실천 활동을 부가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계획도 수립하였다.

■ 연구 및 실천 활동의 구체적 성과

현재까지 본 연구소의 활동은 크게 1991년부터 1997년까지의 정립 단계, 1998년부터 현재까지의 성장·발전 단계로 구분할 수 있

“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는 설립 초기부터 안동을 비롯한 경상북도의 전통문화와 농촌 마을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이외에 민속학연구소에서는 지역박물관 계획의 수립, 지역 축제의 기획 및 평가, 전통문화 관광 상품의 개발, 농어촌 되살리기 운동의 전개 등 응용적 연구와 실천 활동을 부가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계획도 수립하였다.

”

다. 초기 정립 단계에서 연구소의 활동은 주로 연구소원 혹은 다른 대학의 연구자들이 매 학기 2~3회에 걸쳐 월례 발표회를 수행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성과들을 ‘민속연구’로 묶어 매년 책으로 출판했으며, 현재 총 14권을 발행하였다. 1998년부터는 매년의 특정 주제를 정해서 연 2회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이를 묶어서 단행본을 간행하는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예를 들면 ‘제사와 문화’, ‘민속과 관광’ 등이다.

학술회의 이외에도 매년 연구소원들의 공동 연구, 경상북도 특정 지역에 관한 조사 및 연구,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용역 사업 등을 수행하여 총 16권의 연구 총서를 발행하였다. 공동조사 및 연구로는 총서 1집인 ‘한국민속과 문화연구’ (1991), ‘구미·선산의 세시풍속’ (1992), ‘구미·선산의 역사와 문화’ (1992), ‘안동 양반의 생활문화’ (1998), ‘고려 공민왕과 임시수도 안동’ (2005) 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용역 사업으로 ‘울진의 문화재’ (1991), ‘예천의 우시장’ (1991), ‘구미역사 민속박물관 전시 기본계획’ (1992), ‘금오산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1994), ‘안동민속축제 개선방안 조사연구’ (1996), ‘고치재 산령각

조사사업’ (1997), ‘퇴계탄신 500주년 기념 국제유교문화제 기본계획 수립’ (1999), ‘일월산 민속문화공원 조성 기본계획’ (2001), ‘영양산촌생활사박물관 건립 전시 기본계획’ (2001), ‘예천청단놀이’ (2004), ‘청송백자가마터 지표조사연구’ (2005) 등이 있다.

민속학연구소는 민속학 관련 학술단체 혹은 한국학 분야의 연구자와 공동학술발표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1993년 민속학 관련 학회 중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한국민속학회와 공동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 이후 현재까지 민속학 관련 학회들과 다양한 각도의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민속학의 연구성과를 실천 활동에 응용하는 데 관심이 많은 민속학자들의 학술모임인 실천민속학회와 공동으로 연 2회의 공동학술발표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또한 해외의 민속학 혹은 한국학 연구기관과 연구 협약을 맺고 공동학술조사 및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일본 동양대학교 아시아-아프리카연구소와 1994년에 공동조사연구 사업에 관한 협약을 맺고 정기적으로 일본 시마네현과 경북 동해안 지역을 공동조사연구하고 있다. 1996년에는

일본 시마네현 교육위원회 고대문화센터와 자매결연을 맺고 동해안 지역의 동제를 조사연구하였다.

민속학연구소의 공동연구는 민속학자 혹은 해외의 한국학 관련기관 이외에 안동대학 내에서도 한국학과 연관된 학과 및 연구소와 활발히 진행되었다. 특히 민속학과와 한문학과 그리고 동양철학과의 '국학부'라는 하나의 학부로 통합되면서 한국학의 체계적 연구 및 재생산 기반을 조성할 수 있었으며, 국학부 관련 안동문화연구소, 퇴계학연구소 등과 함께 한국학 국제학술대회를 1997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2001년부터 민속학연구소에서는 경상북도의 전통마을 조사연구를 장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매년 경상북도 한 마을을 공동 조사하여 조사보고서를 단행본으로 출판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안동 풍산읍의 목현마을(2001), 문경 현리(2002), 청송 청운리(2003) 등이 간행되었고, 2004년에 조사한 영덕 창포리에 관한 조사보고서는 곧 출판될 예정이다. 마을 조사와 함께 민속학연구소에서는 매년 2회에 걸쳐 마을 조사 및 연구에 관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2001년 '마을 민속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2002년 '마을 민속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 2003년 '마을 민속전승 어떻게 할 것인가', 2004년 '마을 민속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주제였으며, 발표된 연구 성과들은 책으로 엮어 출판하였다.

■ 연구소 활동의 한계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는 1990년 설립된 이래 민속학과 교수들뿐만 아니라 한문학, 동

양철학, 사학, 의류학, 식품영양학, 건축학, 경제학 등 다양한 전공의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작지만 강한 연구소'를 지향해 왔으며, 꾸준한 연구 및 실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본 연구소의 연구와 활동은 민속학뿐만 아니라 인접학문 연구자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 소규모 국립대학에 설치된 연구소라는 한계 때문에 연구와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우선 대학 본부는 연구소의 연구 성과와 관련 없이 대학 내에 설립된 모든 연구소에 거의 동일하게 지원하기 때문에 활동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된다. 가장 단적인 예가 연구소의 전임연구원 부채 상황이다. 연구소의 연구 및 실천 활동을 전담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유급의 전임연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대학의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 허가되지 않고 있다. 전임연구원이 없는 경우 연구소의 연구 및 실천 활동에 제약을 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학술연구를 지원해 주는 국가기관, 예를 들어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여러 가지 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다.

연구소의 활동에 장애가 되는 또 다른 문제로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지원 내지는 무관심을 꼽을 수 있다. 본 연구소의 마을 조사 사업에는 8명 이상의 전임교수들과 다수의 박사급 연구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경비가 소요된다. 경비는 연구소 기금과 조사 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충당된다. 민속학과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약간의 재정적 지원을 기반으로 특정 마을을 공동조사하는 본 연구소의 사업에 대하여 유럽과 미국의 민속학자들은 상당히 경이롭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유는 다양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교수들

이 특정 마을에 초점을 맞추고, 일정 기간 마을에 공동으로 조사연구하는 쌀 수매 사업은 참여자들의 희생 정신과 강력한 팀워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현재 쌀 수매 문제로 전국의 농민들이 정부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농민들의 농촌 정책에 대한 불만은 본 연구소의 마을 조사가 실시된 초기부터 자주 접해오던 것이었다. 현재 농촌 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대부분 60세 이상으로 한국 현대사라는 고난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였고, 또한 국가의 발전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그동안 국가의 잘 못된 농촌 정책으로 인해 계속 희생만을 강요당했기 때문에 지금의 저항과 반발은 당연한 귀결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소한 농민들의 지속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세워야 한다. 농민들을 위한 정책 입안은 농민들의 역사적 경험과 삶의 현장에 대한 조사연구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도 지방의 소규모 국립대학 혹은 현재 우리나라 농촌 마을과 같

이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소가 존속하는 동안 농촌 마을 주민들의 역사적 경험과 현재의 삶을 지속적으로 조사연구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농촌 마을 주민들에게 그들이 살아 온 역사와 현재의 삶에 대하여 자긍심을 느끼게 할 것이다. 또한 우리 민족의 전통적 생활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소개하는 실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나아가 다른 분야의 연구자와 공동으로 농촌 마을 주민들의 삶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개발 방향에 대하여 고민하고 연구할 것이다. **■**

이상현

독일 튀빙겐대학교에서 민속학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비교민속학과 비교문화』, 『민속문화의 전통과 외래문화』 등이 있다.

